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702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2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0일

2. 제안이유

- 가.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,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,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 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
(안 제12조제1항)

나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

(1)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
(안 제12조제2항제1호)

(2)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
및 확산(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(3)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
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(안 제12조제2항제4호)

(4)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
(안 제12조제2항제5호)

(5)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
지원(안 제12조제2항제6호)

다.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
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(안 제12조제3항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과 지원방향을 공유하는 국제기구인 “좋은 일자리 협의체”의 구성과 협의체 사무국 설치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구축

- 서울시는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이후,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 전담부서를 출범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음.
- 이러한 서울시 차원의 혁신적인 노동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, 노동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ILO기준 등 국제사회의 가치 통합 실천을 위한 도시 간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7년 “제1회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포럼(이하 “포럼”)을 개최했음.
- 제1회 포럼에 참석한 도시들은 국제기구와 중앙정부의 협력, 고용안정,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대화 강화 등 8가지 조항이 담긴 “서울 선언”을 발표했으며, 2018년에는 “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”를 주제로 제2회 포럼¹⁾이 개최되었음.

1) 20개 도시(해외13개, 국내7개), 17개 관련기관이 참여

- 특히 제2회 포럼 참석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도시 간 협력 구축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며, 폐회에 앞서 “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(이하 “도시협의체”)”의 창립을 발의하고 참여를 확정했음.
- 제3회 포럼은 2019년 12월 “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”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,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국내·외 40여개의 참석도시들과 함께, 도시협의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임.
- 도시협의체는 노동정책을 추진 중인 도시정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, 학계와 노동전문가의 우수노동정책을 분석한 후 도시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〈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(Decent Work Cities Network, DWCN)〉

- 주요 역할 및 기능
 - ILO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‘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’ 개발
 - 도시정부간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
 - ‘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’ 정례화 및 분야별 집중 세미나 등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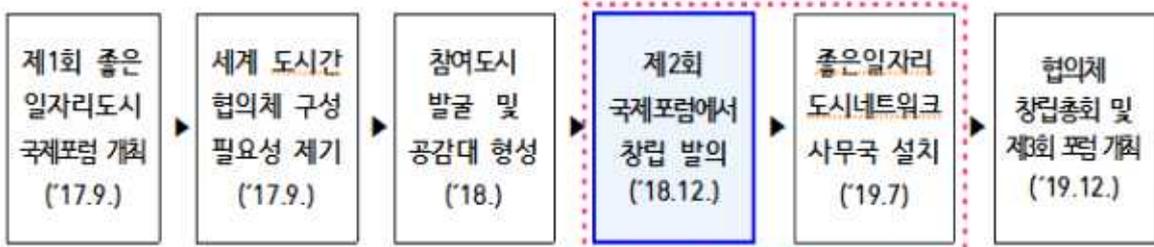
○ 회원도시 : 40개 도시(예정)

- 2018년 제2회 국제포럼 참가도시 중 협의체 참여확정도시 16개

미주(3)	뉴욕, LA, 호놀룰루	유럽(2)	빈, 밀라노
아시아태평양(7)	크라이스트처치, 타우랑가, 콜롬보, 자카르타, 방콕, 홍콩, 브리즈번		
대한민국(2)	서울시, 광주시	아프리카(2)	요하네스버그, 셰프샤우엔

- 국내·외 선진노동정책 추진도시 및 노동전문기관 참여 독려

○ 설립과정



- 서울시는 도시협의체를 통해 국·내외 도시간 노동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, 포럼을 정례화할 계획임.
- 중앙정부 주도로 논의되었던 노동·일자리 정책을 도시정부 차원에서 상호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도시협의체의 조성은 필요하며, 향후 도시협의체와 포럼을 통해 노동분야에서의 도시 간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이 노력이 요구됨.
- 한편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외에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(GSEF), 세계스마트시티기구(WeGO) 등을 설립하고 의장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며, 모두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[참고자료1].

다.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(안 제12조제3항)

- 안 제12조제3항은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사무국은 포럼 및 도시협의체 참여 도시의 발굴과 가입 지원 등 네트

워크 관리, 노동모델 개발 연구과 사례 분석, 분과별/대륙별 심포지엄, 국제 포럼 등을 기획·운영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.

-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포럼의 초청도시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과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비용, 인건비 등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〈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사무국 관련 추가경정예산(안)〉

과목구분	산출내역 및 증감사유
사 무 관 리 비	○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비용(사무집기 등) 20,000천원*1식 = 20,000천원
	○ 인건비 (7~12월, 2인) 25,000천원*1명 + 15,000원*1명 = 40,000천원
	증감사유
	○ 도시협의체 사무국(7월) 개소를 위한 사무집기(컴퓨터, 책상, 복합기 등) 비용 및 공사비용 ○ 인건비 2인 : (정) 25,000천원 (부) 15,000천원

- 서울시의 “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및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계획안”에 따르면, 사무국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고, 교내 100주년기념관에 설치·운영 후, 2021년 이후 독립 사무국으로 운영할 계획임.
-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부설기관은 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규정하고 있어, 신규 부설기관 설치 시 관련 조례의 개정이

필요한 바, 7월 개소를 목표로 하는 해당 계획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 입주할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 임대료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- 현재 100주년기념관 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교육관을 운영 중으로, 다 401호(158.17 m^2)와 나 810~811호(49.50 m^2) 등에 대한 사용료로 약 3천 3백만원을 납부한 바, 이에 준하여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나래	02-2180-8057

[참고자료1] 서울시 국제기구 가입현황 (총10개)

(2019.1월 현재)

연번	기구명	규모 (회원도시 및 단체)	개요	연회비 (매년)	비고 (주관부서)
1	시티넷 (CITYNET) 본부	154개 도시 및 단체	▶총 회(4년) - '09.9 요코하마, '13.11 서울, '17.11 콜롬보	\$10,000	의장('89년 가입) (해외도시협력담당관)
2	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 (GSEF)	49개 도시 및 단체 (서울, 몬트리올, 빌바오 등)	▶'16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 총회 개최 '18년 10월 스페인 빌바오 총회 개최	\$10,000	'14. 11월 설립 및 가입 의장도시 (사회적경제담당관)
3	세계스마트시티 기구 (WeGO)	회원도시 152개	▶세계총회(3년) - '10년 서울(창립총회), '12년 바르셀로나, '14년 청두, '17년 울라놉스크	한국지부 회비 \$10,000	2010년 설립·가입 정회원(의장도시) (스마트도시담당관)
4	국제도시조명연맹 (LUCI)	정회원: 44개국 74개 도시 준회원: 52개 기업 및 연구소	▶ 도시 조명정책 및 관련 기술 교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조명분야 유일의 글로벌 협력체 ▶'16년 서울 총회 시, 서울시 제1부회장 취임('16.11~'18.11) ▶'18년 라바트(모로코) 총회 시, 서울시 회장 취임(행정2부시장)	€6,210	의장('07년 가입) (도시빛정책과)
5	세계대도시협의회 (METROPOLIS)	134개 도시 및 단체 (파리, 베를린, 카이로 등)	▶총 회(3년) - '11.11 포르투알레그레, '14.4 하이데라바드 - '17.6 몬트리올	€18,920	집행위원('87년 가입) 아시아지역부회장 (해외도시협력담당관)
6	세계지방 자치단체연합 (UCLG)	UN 193개 회원국가 중 140개국의 1,00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	▶세계총회(3년) - '04. 5 파리, '07.10 제주, '10.11 멕시코, '13.10 모로코, '16.10 보고타		세계이사, 집행위원 및 아태지부 이사위원('98년 가입) (해외도시협력담당관)
7	세계대중교통협회 (UITP)	3,400여 기관(92여 개국) (서울, 홍콩, 싱가포르 등)	▶세계총회(2년) - 제59차 : '11 두바이, 제60차 : '13 제네바, 제61차 : '15 밀라노, 제62차 : '17 몬트리올	1,200만원	1885년 설립 정회원('05년 가입) (교통정책과)
8	아·태 관광협회 (PATA)	73개국 1,000여 회원	▶아태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▶세계총회(1년) - '16년 괌, '17년 스리랑카, '18년 강릉	회비 없음	정회원('70 가입) (관광정책과)
9	세계관광도시 연합회 (WTCF)	168개 도시·기관 (113개 도시, 55개 기관)	▶세계관광도시 연합체 ▶세계총회(1년) : '16년 충칭(중국), '17년 LA(미국), '18년 칭다오(중국)	회비 없음	정회원('12 가입) (관광정책과)
10	아시아대도시 네트워크 (ANMC 21)	13개 도시 (서울, 도쿄, 팔라렘푸르, 델리, 싱가포르, 양곤, 방콕 등)	▶총 회(매년) - '10.11 도쿄, '11.10 서울, '12.6 싱가포르, '13.11 하노이 ※ 2015년말부터 사무국 활동 중지		정회원 '01년 가입 (국제교류담당관)